

『박영숙을 만나다 :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

- 1장, 2장, 3장

이 글은 박영숙이라는 한 여성의 삶 뿐 아니라, 한국의 여성운동사와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누구의 삶이라도 그것은 역사를 담지하는 것이겠지만, 이 글이 특히 반가운 것은 지금의 내가 이만큼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지난하지만 역동적인 과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며, 민주화운동이 남성과 동일시되는 현실에서 굴곡진 역사의 매 순간마다 여성들이 어떻게 함께 했으며 또 다르게 나아갔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여성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던 바람대로 여전히 현장을 누비는 그녀를 보며,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론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세상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인들이 기억하는 박영숙의 모습이 프롤로그로 소개되어 있는데, 일화 하나하나 에너지 넘치고 소탈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을 하던 그녀를 항상 따라붙던 형사가 만원 버스에서 자신을 놓치자 형사에게 “야, 내려.”라며 큰소리로 부른 것, 연말이면 오늘 하루 ‘진정으로 섬기고 싶다’며 활동가들을 초대한다는 일화는 특히 눈에 띈다. 아마 나에게는 없다는 한 담대함과 섬김의 자세 등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을까 하는 호기심어린 관심으로 글을 읽어나가게 되었다.

1. 공적인 삶을 꿈꾸다(1932~1954)

1932년 평양에서 태어난 박영숙은 “관습화된 삶의 방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부모님 덕에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낸다. 이와 관련한 일화는 많지만 그 중 아버지의 재봉질이 눈에 띈다. 아버지는 당시 처음 소개된 재봉틀을 사와 직접 아내와 아이들에게 옷을 해 입혀주었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먼저 밥을 퍼 주거나 더 챙겨주는 관례와는 달리 나이순으로 밥을 주고 똑같이 나눠 주었다.

그녀가 아홉 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뜨고, 이후 가사만 돌보던 어머니는 박영숙의 할머니가 계시던 만주를 드나들며 장사를 하게 된다. 이른바 보따리 무역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데, 어머니의 새로운 행보는 어머니가 가장이 되었다는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딸이라고 차별을 하던 집안이 아니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바깥일을 하면서 남자 일, 여자 일의 구분이 흔들리며 성 역할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또한 만주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조선에서 만날 수 없는 낯선 물건들과 함께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이는 그녀에게 살고 있는 곳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 그녀가 ‘새로운 상상력의 소유자’로 평가받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후 양조장을 하고 있던 개가한 할머니와 함께 만주에서 보낸 시절은 “혈연과 비혈연이 한 집안에서 가족처럼 사는 법, 가정집과 비즈니스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공간, 한국어

와 중국어와 일본어가 아무런 경계 없이 사용되고 일상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이 공존하여 사는 법”을 터득하게 했다.

해방 후 평양으로 돌아온 열다섯 살 박영숙은 ‘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친구들에게 선언한다. 공적인 삶의 의미는 자식을 키우는 삶 외에 다른 삶을 꿈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어머니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과, 자신을 헌신하며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했다. 공산정권이 강화되며 어수선했던 평양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온 그녀는 1951년 이화여대 영문과에 입학한다.

소학교 입학은 평양, 졸업은 만주에서 하고, 평양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그녀의 궤적은 새로운 것에 빨리 적응하는 힘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품성을 갖게 해 주었을 것이다. 피난지 부산에서 이화여대가 문을 열게 되어 홀로 내려간 그녀는 학과 공부보다 전쟁고아와 피난민들을 돕는 자원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여자대학생’은 그야말로 기이한 존재였던 당시, 여자대학은 ‘리더는 남성’이라는 확고한 관념을 깨고,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행사를 조직하고 실현해 내는 주체로 성장한다. 이후 박영숙은 대학생 YWCA 회원이 되어 농촌 활동과 자원활동을 하며, 멘토를 만나게 된다.

2. 평생 멘토를 만나(1955~1969)

1947년 미국 YWCA로부터 한국 YWCA의 고문 총무로 파송된 박에스터와의 만남은 박영숙이 오늘의 여성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남성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각종 정보에서 차단되어 권력기반이 취약한 여성에게 멘토링은 역할 모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이 된다(79). 박에스터의 멘토링은 박영숙을 여성 활동가로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화초를 즐겨 키우고 때마다 음식을 장만해서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삶 또한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YWCA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으며 박영숙은 리더십의 자질이 쌓여간다. 1956년 7개월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홀로 떠난 파견교육에서 박영숙은 회의뿐만 아니라 TV에도 출연해 영어로 한국의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첫 회의를 마치고 사람들과 헤어진 뒤 산에 올라 큰소리로 울고 뱃심과 여유를 찾았다는 일화는 모든 것이 낯선 외국에서의 경험이 담대한 그녀에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은 그녀를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보기, 듣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운영하기” 등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하였다.

호주에서 캠프를 인상 깊게 본 박영숙은 귀국 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며 와이틴 간사로서 전국 조직을 건설한다. 그녀는 청소년들에게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내재된 인간의 능력으로 이는 효과적인 훈련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길러진다는 것을 강조했다(92).

서른들의 나이에 최연소 YWCA 총무가 되어 활동을 하던 중 평생 멘토가 된 안병무를

만난다. 안병무와의 결혼은 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두 그룹간의 결합을 의미했다. 안병무가 민중신학을 기반으로 억압받는 자들의 영토에 있고자 하는 신념강한 교수였다면, 박영숙은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애정으로 살아온 열정적인 휴머니스트이자 여성주의자였다. 두 사람의 강한 유대감은 이후 민주화 운동에서 정치활동, 환경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녀는 남편 안병무를 인생의 스승으로, 평생 멘토로 인정하고 일생 동안 열린 마음으로 존경했다(120).

3. 여성 운동 한복판에서(1970~1986)

아들 재권을 낳고 육아를 위해 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논의 끝에 박영숙이 활동을 접기로 했다. 아이가 세 살 무렵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이는 조카 김정림이 함께 살며 아이를 돌봐주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여성이 일을 하는 데는 다른 여성들의 지원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127)는 말은 안타깝지만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 같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그녀는 가족법개정운동과 소비자보호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유신정권은 시민 사회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정책을 지지하도록 탄압했다. 체제 내에서의 활동이 본의 아니게 유신정부를 옹호하고 사회의 모순을 심화되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하는 고민으로 일을 그만둔다. 1970년대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국가에 의해 동원되고 이용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 억압과 모순의 구조 속에 오히려 여성들의 진정한 각성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133). 이러한 움직임에 막강한 기여를 한 것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중간 집단 교육이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1959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라는 모임을 시작으로 1965년 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한다. 1970년대를 맞이하며 ‘인간화’를 목표로 세우고, 양극화되는 현실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사람들을 키워내자는 취지로 ‘중간집단 교육’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종교단체, 노동자단체, 농민단체, 여성단체, 학생단체가 포함되었고 당시 박영숙은 여성단체를 교육하는 핵심지도자로 활동하며 이후 한국여성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추세력이 되는 인물들을 양성한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으로 안병무는 구속되었고 당시 함께 구속되었던 피고인들의 배우자들을 중심으로 ‘3·1 사건 가족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와 이회호 등이 함께 한다. 단식농성, 철야농성, 시위를 하며 구속자 가족들의 정치세력화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시위형태는 매우 시각적이고 창의적이며, 그 자체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는 입에다 검은테이프를 십자로 붙이고 재판소 앞에서 시위하거나, 고난과 승리의 상징인 보라색으로 한복을 입고 ‘공개재판’이라고 쓰인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거나,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쓴 양산을 받쳐 들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빅토리술’이라 이름붙인 보라색 술을 떠서 시위현장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민주화투쟁을 하다 구속된 학생, 무의탁 재소자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금 마련을 위해 빅토리술 뿐 아니라 목걸이와 티스푼, 십자수를 놓은 손수건

등을 함께 만들었다.

1984년 여대생성추행협의회 활동, 1985년 여성노동자생존권대책위원회 활동, 1986년 부천경찰시 성고문 대책위원회 활동 등은 여성들 간에 강한 결속력과 신뢰의 기틀을 마련했고 1987년 여성단체연합이 창립되는 밑거름이 된다(167). 이즈음 군사독재의 극악한 폭력과 탄압에 박영숙은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폭력에 맞선 폭력은 참담한 희생만을 불러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비폭력평화운동을 결심한다. 1987년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정하고 여성단체회원들을 중심으로 화염병과 각목 대신 죽음에 대한 애도의 의미를 담은 삼베 수건을 머리에 쓰고 카네이션을 시위대에 나눠주었다. “쏘지 마!”라는 작은 외침은 곧 거대한 함성으로 이어졌고, 전투경찰에게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다. 양진영 사이로 찢나였지만 영원 같은 침묵이 흘렀다. 비폭력 평화 운동은 폭력의 악순환을 성찰하게 하였고, 여성운동은 물론 민주화 운동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최초의 시민불복종 운동이라 할 수 있는 KBS 시청료 납부거부운동, 최루탄 추방운동과 화염병 처벌법 입법 반대투쟁, 양심수 석방운동, 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등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 박영숙은 늘 여성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YWCA에서의 여성운동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이성적 존재임을 강조했다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그녀는 동일한 인간이되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고 다른 성향과 역할이 기대되며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다름에 의해 유발되는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억압적 현실을 드러내고 남녀간의 성별적 계급화 현상에 적극 대처하며, 이러한 대응들은 여성들 스스로에게도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